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TWO TIME

연출 / 각본 : 이호영

[로그라인]

사기 전과로 감옥에서 출소한 문성은 대학 후배이자 피해자인 정민과 우연히 마주친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다툼 속에서, 둘은 끝내 폭력을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시놉시스]

문성은 사기 전과로 2년의 징역살이 후 집에 돌아온다.
하지만 손을 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 한다.
어머니에게는 또다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문성.
그리고 배달부이자, 피해자였던 대학 후배 정민을 우연히 마주친다.
문성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분노하는 정민.
하지만 문성은 오히려 이미 벌을 받았고, 돈이 없다면 적반하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그러나 그를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정민.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동정심에 호소하는 문성.
둘은 결국 문성이 시원하게 맞고 끝내기로 한다.

그러나 문성은 맞는 것 역시 두렵다.

[Tone and mood]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문성 역] * 배역의 이름은 캐스팅 후, 배우님의 성함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남성

사기 전과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

하지만 당장의 빛과 아픈 어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기의 길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는 언제나 문제와 결핍에 맞서기보다는 자포자기 식으로 피하며 물 흐르는 듯 살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격지심은 그의 문제들을 히스테리 또는 거짓으로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에겐 어머니가 있다. 그의 책임감이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였던 어머니.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문성에게 어머니는 그가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역시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한다.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Character's Key Words]

남성, 34세, 전과자, 사기, 까까머리, 거친 피부, 호리호리
평균 키, 수영 자국, 무쌍, 맥아리 없는, 자격지심, 열등감
후줄근, 반바지, 전자담배
회피, 비굴, 지레짐작, 덮어놓기, 자포자기, 정확한 덕선
어머니, 조직, 포기, 빠져나갈 수 없는 덫

[Reference Image Board]



[Biography] * 바이오그래피는 전사를 포함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설정 참고자료입니다.
배우님의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환영합니다.

1

이른 나이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다. 어렸을 적 문성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누구에게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인은 문성이 홀어머니와 둘이 산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것이다. 그는 이렇 듯, 알게 모르게 자신이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가족관계를 자신의 문제라 여겼다. 그리고 회피했다. 가정환경이 그렇듯, 그는 그다지 유복한 유년생활을 보내진 못했다. 교육의 기회도 남들과 비교적 부족했으며, 생활 형편이 부족하진 않다 생각했지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생활이 싫었다. 그런 연유로 그의 유년 시절에는 어느정도의 우울과 비관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여기고 노력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에게 있어 공부 등의 미래를 위한 노력은 마라톤 중간에 자신이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선수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 개개인의 내재된 가치로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등 쓸모없는 일이었다. 포기하지 않을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행동을 계속하기엔, 문성에게는 그럴만한 여유도, 기회도, 의지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현실감이 무디게 만들며 살아왔다. 그와 언제나 함께하는 결핍. 그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닌, 묻고 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학창 생활은 순간순간의 말초적인 자극만을 쫓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흔히 부르는 비행 청소년으로 보였다. 다만, 무리의 주축이 되는 인물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괜히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남탓을 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급급했다. 그러던 와중, 그의 결핍의 중심, 어머니의 단 한가지 바램이 있었다. 어느 곳이든 상관 없으니, 대학에 진학하는 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것은, 문성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다. 그렇게 그는 가고 싶은 이유도 없는,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대학을 물 흐르는 듯 입학하게 된다.

2

가상화폐가 막 떠올라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때, 그는 스물 다섯이었다. 군 전역 후 조금씩 저축해 놓았던 돈을 조금씩 째끔째끔 써가며 코인판에 뛰어들었으며, 정보 공유 오픈 채팅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과거가 있다. 그 톡방에는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눈팅만 하는 유명회원, 나머지 절반은 타의든 자의든 코인을 접게 되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이 5명. 그 중에서 '성락테크' 라는 닉네임의 회원은 톡방 대부분의 정보를 가져왔었다. 물론 틀린 정보도 많았다. 그러나 맞는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그를 통해 돈을 번 경험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의 정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있어 구심점이 되었다. 어느 날 성락테크가 코인을 더 깊고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자며 톡방을 나갔다. 문성은 그 때문에 잃은 적도 많지만, 그렇게 투자에 진심인 사람을 본 적 없었고, 잃은 것만이 아닌 딴 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문성을 포함한 오픈채팅 회원 5명과 성락테크의 동료 5명. 성락테크의 본명은 김성락. 성락의 동료들은 원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나, 종목을 바꾸고자자 코인판으로 뛰어 들었다고 한다.]그들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밖으로 뛰어다닐, 코인에 대해 제법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 문성을 포함한 회원들을 모았다고 한다.

문성과 회원들은 주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기 보다는 투자자들을 찾아가 새로 상장될 코인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일을 했다. 입으로 하는 사기꾼의 포지션. 투자자라곤 하지만, 타겟은 주로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닌, 대부분 평범하고 연줄 없는 소시민들이었다.

그렇게 주가 조작을 시작하면 자신이 유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팔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빼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임시로 만든 거래소까지 닫고 잠수. 문성은 약 10명 정도의 투자자를 만나 코인사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조직은 50여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문성의 일은 위험부담이 크지 않고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입만 놀리는 일이고, 돈은 다시 작전에 쓰여야 한다며 언제나 월 350만원 정도 밖에 챙기지 못한다. 얼굴이 팔리는 건 자신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영 불만이 계속 쌓여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무렵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아둔 얼마 없던 돈은 병원비로 모두 써버렸다. 모자른 돈은 김성락에게 부탁해 빌렸다. 약 3천만원. 문성은 일은 정말 그만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냐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사기에 뛰어들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 어머니에게 미안함 마음도 품고 있었다. 정민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 무렵이다.

3

문성에게 정민은 어떤 사람이였을까. 두 살 어린 정민은 문성의 대학 후배다. 곰같이 큰 덩치에 험악한 첫 인상. 문성은 사실 정민을 처음 보고 조금 겁먹었다. 학교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존재감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선배가 아닐까 싶었다. 게다가 말 수도 없어서, 문성은 정민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그가 사실 후배였음을 알게 된 후, 문성은 정민이 괜히 맘에 들지 않았다. 쓸 데 없이 무게를 잡는 것만 같고, 착한 척 하는 거 같고, 말도 답답하게 하는 거 같고. 사실 맘에 들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후배인 정민에게 쫓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였을 것이다. 그 후로 문성은 정민에게 조금 막 대하며 가까워졌다. 문성은 정민을 만만하게 여기며 자신의 아래에 두면서, 그리고 정민의 대들지 못하고, 순진한 성격 때문에 둘은 상하관계의 모습을 띄지만, 어쨌든 제법 가까워 보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문성은 정민을 정말 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첫 인상과는 다르게, 문성은 다루기 쉽고, 언젠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떠오른 고객이 정민이었다.

4

그러나 결국 조직은 경찰에 꼬리가 잡힌다. 조직에서 적어도 4명은 구색에 맞춰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 성락은 꼬리인 문성에게 빚을 없던 일로 해줄 테니 감방에 다녀오라고 한다. 초범이라 딱 2년만 다녀오면 된다고. 문성은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옥에 간다. 감옥 안에서 문성은 성락을 통해 어머니의 병원비를 낸다. 꼬리가 짚려 팽당한 처지지만, 문성은 한편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성락이 고맙기도 했다. 그리고 출소 후, 감옥에서 다시 쌓인 다시 빚을 갚기 위해 성락의 조직과 함께 사기를 다시 시작한다.

[문성 역 시나리오 발췌]

(중략) 문성은 정민과 먹살잡이까지 하며 말다툼을 한다. 정민은 문성이 들고 있는 돈다발이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문성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지폐뭉치를 꺼내 정민에게 건네 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문성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표정이다.

문성: (억울한 듯) 나도...나도 그냥 그 새끼들 꼬봉이라...얼마 받지도 못한다고. 돈은 그 새끼들이 다 먹고, 나는 그 개새끼들 똥꼬나 빨다 대신 감빵도 갔다 오고...씨발! 통장도 대포로 다 넘어갔어! 씨발, 근데 그만 둘 수가 없다고! 그나마 있던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가고! (울분이 터진다)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정민은 문성을 조용히 노려보고 있다.

정민: (정적) 거짓말이지 또?

문성: (마치 화를 내는 듯) 그럼, 그냥 죽여! 그럼 됐어? 내가 죽는다고! 그래 씨발, 못 믿겠으면 차라리 그냥 죽이라고!

문성은 정민의 한 손을 붙잡는다. 정민은 힘으로 저항한다.

정민: (잡힌 손을 휘두르며) 잡지 마!

문성: (정민의 얼굴 가까이서 소리친다) 죽여! 죽이라고! 나도, 이제 다 그만하고 싶으니까!

정민은 문성을 밀쳐서 떼어낸다. 현관문 앞 바닥에 주저 앉은 문성. 울고 있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 둘 사이의 몇 초간 정적.

[문성 역 END]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정민 역] * 배역의 이름은 캐스팅 후, 배우님의 성함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중국집 배달부다.

대학 선배였던 문성에게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진무구하고 여린 마음이 콤플렉스였다. 주변인들은 종종 첫 인상과는 다르게 그를 만만하게 보거나, 더 나아가 호구 또는 조금 모자란 친구로 보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내심 화도 내고 싶고, 누군가의 위에 서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을 비관하곤 했다.

문성과의 사건이 정민에게는 방아쇠가 되었다. 이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쌓였던 불만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까지 더해, 그의 분노는 문성을 향하고 있다.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Character's Key Words]

남성, 32세, 배달부, 거구, 근육돼지, 짧은 머리
험악한 첫 인상, 작은 눈, 순진, 융통성 없는, 내심 지배욕
과묵한, 외강내유, 습관적/ 인위적 욕설,
약간의 말더듬, 겁
조금 모자라 보이는, 주눅, 소심, 처지비관
헬멧, 조끼, 카고바지, 카드 단말기

[Reference Image Board]



[Biography] * 바이오그래피는 전사를 포함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설정 참고자료입니다.
배우님의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환영합니다.

1

정민의 삶은 그의 의견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크게 좌지우지 하곤 했다. 어렸을 적부터 제법 덩치가 컸고,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지레 겁먹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의견과 다르게 여린 성격을 가졌었다. 외강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집안 환경때문인지,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는 몰라도, 그의 소심한 성격은 언제나 그의 의견과 대비를 이루곤 했다. 이러한 대비는 그에게 있어 콤플렉스로 다가왔다.

2

정민의 가정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서민층 가정이었다. 다만, 그의 유년기에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가 살았던 3층 빌라는 할머니 소유의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정민과 할머니 단 둘 뿐인 날이 많았다. 그의 할머니는 복스러운 그를 사랑했지만, 정민의 기억 속엔 제법 엄격했다. 밥은 언제나 집에서 먹어야 했으며, 저녁시간까지 밖에서 노는 것도, 말대답 또한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기억이 많았다. 그는 언제나 할머니의 규칙 속에서 살아왔다. 정민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이자, 아버지, 집의 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였다. 한번쯤 대들법도 했을텐데, 정민은 고분고분 할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일까. 그럴수록 정민은 내성적이게 되었고, 누군가의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3

그의 학창시절에는 언제나 울분이 함께했다. 그러나 그 울분을 표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정민은 어렸을 적부터 덩치가 있었다. 또래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가. 친구가 덩치에 안 맞게 소심하고 여리면,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점 말이다. 정민은 그래서인지 꽤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진 편견과 획일적인 미의 가치에 반하는 모습의 정민은 ‘착해보이지만 모자르고, 화도 못내고 둔해서 괴롭혀도 괜찮은 아이’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 거기에 더불어 부모님이 신경을 잘 못쓰고, 할머니가 뒷바라지를 해주는 아이라니. 그 시절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핑계를 덧붙이기에 적절한 조건이었다. 당연하게도 정민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물론 화도 내보았다. 하지만 혼자서 다수의 아이들이 만드는 분위기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민은 얼른 졸업하기를 바랐고,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점점 더 자신의 내면 속으로만 들어가게 된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다. 수업시간에 배가 아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졌다. 그러나 모두의 앞에서 손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게 도무지 부끄러워 할 수가 없었다. 안 그래도 그 시절 학교에서 대변을 본다는 것은 놀림의 지름길이지 않았는가. 그는 수업이 얼른 끝나길 바라며 꼭 참았다. 그러나 생리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실례를 했다. 그는 죽고싶은 마음으로 옆자리 짝꿍에게 도와달라며 조용히 사실을 말했다. 기겁하며 선생님께 큰 소리로 전하는 짝꿍. 그리고 그에게 꽃히는 모두의 경멸 어린 시선. 어린 나이 그는 느꼈다. 죽고 싶을 만큼의 창피함과 동시에 교실의 모두를 향해 확산되는 분노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는 그 장면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사춘기는 그렇게 시작했다. 그는 아주 조금씩, 점점 할머니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4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조용한 학생 A를 자처했다. 종종 일진 무리들이 그의 덩치를 보고 호기심을 보이거나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의 내성적이고 별 반응하지 않으려는 성격에 이내 흥미가 떨어져, 만만한 학생 A 정도로 대했다. 물론 괴롭힘은 있었다. 하지만 왕따가 아닌, 일상적인 시비 정도였기에 그는 순종하고, 불만을 삭히는 데 익숙했다. 다만, 전과 다른 것은 할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는 이제 밖에서 배출하지 못하고 꼭꼭 눌러온 감정들을 집에서 표출하는 듯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께 화를 내보았다. 단순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 저녁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집을 뛰쳐나오며 불편한 쾌감을 느꼈다. 한참을 배회하고 돌아온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쓰러진 할머니. 그는 어쩔줄 몰라하며 119를 불렀다. 그리고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정민은 그렇게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의 굴레에 빠졌다.

5

그렇게 소심함과 쉽게 주눅드는 자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실현하기 힘든 내적 욕망을 가지고 대학생이 되었다. 문성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처음에 문성을 마주치고, 쉽사리 말도 먼저 못 거는 성격인데다, 문성의 첫 인상이 어딘가 삶에 찌들어 있어보여, 자신에게 관심도 안 가진다고 느껴서인지, 정민은 문성을 의도치 않게 피했다. 그러나 우연한 자리로 서로 안면을 트게 된 이후부터 문성은 정민을 제법 막 대하기 시작했다. 막 대한다곤 하지만, 이전까지 봐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별 다를 것 없었다.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일이 바빠서인지, 별 다른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문성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문성이 걸어로 보여주는 말도 잘하고, 세상 무심해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성격이 정민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으며, 그를 속으로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문성이 코인을 던지시 알려주고, 그는 문성에게 넘어가 코인을 시작한다.

6

그 때쯤 정민은 문성을 꽤나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 신뢰보다는 순종에 가까웠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자신에게 확신에 찬 듯 전해주는 문성의 정보와 지시들을 철썩같이 따르면서, 문성을 동경했다. 빛까지 내가며 투자를 할 때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긴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이끌어 주는 문성을 믿기로 한다. 그러나 보기 좋게 문성에게 사기당한 정민. 문성의 행방은 그대로 사라졌다. 문성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 정민은 다시금 자신의 성격때문에 이용당했다는 자기혐오에 빠진다. 그의 일생 전반에 쌓였던 자기혐오는 몰락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밑바닥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진다. 그리고 그의 분노의 원인은 문성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표출하기로 마음먹는다.

정민은 이제 ‘씨발’이란 욕설을 입에 의식적으로 달고 살게 된다. 더이상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민 역 시나리오 발췌]

[Scene #2]

(중략) 정민은 짜장면 배달을 하며 문성과 마주친다. 정민은 문성을 한 눈에 알아봤지만, 문성은 정민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전화만 한다.

정민은 문성의 눈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

정민: 김문성?

문성은 어리둥절하며 정민을 쳐다본다.

정민: 김문성이 맞지? 이 씨발, 사기꾼 새끼. 이런 데 있었네?

정민은 철가방을 내려 놓고 헬멧을 벗으며 말한다.

정민: 오랜만이네. 문성이형, 이 씨발놈아. 기억 안 나냐?

문성은 정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이내 대학 후배였던 정민을 알아보고 멧쩍게 웃는다.

문성: (태연하게) 정민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정민: (어이없다는 듯이) 하...이 개새끼가. 잘 지냈냐고? 어이가 없네, 씨발.

정민은 헬멧을 떨어뜨리고 허리춤에 손을 올린다. 정민은 점점 흥분한 말투로 변한다.

정민: 씨발놈아, 너만 믿으라면서, 떨어지니까 잠수 타더라? 거래소도 바로 닫고, 씨발!

문성: (당당한 듯) 정민아, 미안한데, 나 깜빡 갔다 왔어. 그제 나왔다고. 이미 벌받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찌라고?

문성은 적반하장으로 화낸다. 정민은 문성의 멱살을 잡는다.

정민: 뭐 깜빡? 뭐 벌? 씨발, 니가 떼 먹은 돈을 내가 못 받았는데!

문성은 정민의 손을 잡고 저항한다. 정민은 더 격렬하게 문성의 옷깃을 잡아당긴다. 그리고 집 안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문성은 고통에 신음한다.

문성: 미친 새끼. 경찰, 경찰 부를 거야!

정민: 경찰? (감정이 격해져 울 듯한 목소리) 씨발, 너 나한테 미안하기는 하나?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Scene #5]

(중략)정민이 휘두른 빗자루가 문성의 머리에 그대로 맞는다. 그대로 고꾸라지는 문성. 문성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누워있다. 쓰러진 문성을 몇 번 더 밟아보는 정민.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손에서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문성을 내려다본다. 정민은 숨을 몰아쉬며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한다. 발로 문성의 어깨를 툭툭 쳐본다. 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민: (말을 더듬으며 실소한다) 씨...씨발, 병신 같은 새끼.

정민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하게 웃고 있다.

[정민 역 END]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지원 양식]

**문성, 정민 역 중복 지원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된 메일 주소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 국민대학교 졸업영화 <투타임>_(캐릭터명) 지원_이름_연락처

예시) 국민대학교 졸업영화 <투타임>_문성 지원_이호영_010-1234-5678

프로필 및 이전 작품 연기영상과, 문서 내 시나리오 발췌 썸 연기영상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및 포트폴리오 형식) pdf 또는 pptx ** pdf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ord 또는 한글 파일 x

영상 제목) <투타임>_(캐릭터명)_이름_연기영상

영상 형식) FHD 1920x1080 / 가로비율 / mp4 또는 mov / * 연기 중 컷편집x

이호영
silentfield250@gmail.com
010-5133-3579

[End of Document]
감사합니다.

TWO TIME